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Vol. 25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Cover story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창원의 집

창원의 집은 200년 전 순흥안씨 5대조인 퇴은 두철선생이 거주하던 집이다.
안채, 사랑채, 민속교육관, 팔각정 등 7개동으로 구성된 창원의 집은
조상들의 전통문화와 풍속을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2017년 5월 창원문화재단으로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후
기획전시와 고택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원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발행인 황윤철
발행일 2018. 8. 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055. 285. 5611
편집인 강신철
진 행 손수나·이지예
기획·디자인 디자인바오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Vol. 25

Contents

Special Interview 02 황윤철 회장님 인터뷰

Special Theme 06 삼진미술관
08 아마도 책방 / B급상점
10 합천영상테마파크

Photo Poem 12 김관수 작가 空卽是色 BALI

Mecenat Column 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With Mecenat 18 경남필하모닉 청소년관악단 X 강민(주)
20 경남솔로이스츠 X (주)칼텍코리아

Mecenat Interview 22 PS엔터테인먼트와 극단 이루마의 행복한 만남
26 벨라미치 예술단
30 김대진 창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Mecenat News 34 2018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총회
35 예술단체 워크숍
36 경남메세나협회 임시이사회
37 전국 메세나 단체 대구 워크숍
38 2018 GIAF 경남국제아트페어

Enjoy Culture 40 이성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대지 위에 빛나는 별'
42 문화도시 – 상트페테르부르크
46 시를 읊는 오후 – 경남첼리스타앙상블
48 창원의 집

글 _ 메세나 / 사진 _ BNK경남은행 홍보부

창립 10주년,
전국 메세나의 중심으로 도약

“전국적인 메세나 활성화를 위해 노하우 공유”
“대중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힘쓸 것”

(사)경남메세나협회 제8대 회장으로 황윤철 BNK경남은행장이 선출됐다. 창립 10주년을 넘어 새로운 전환기를 앞둔 시점에 경남 메세나의 새로운 리더가 된 황윤철 회장. 그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황윤철 신임 경남메세나협회장의 포부와 비전이 궁금하다.



Q1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경남메세나협회장이 된 소회가 어떠신지요?

경남메세나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넘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시점에 회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설레면서도 한편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경남은행은 2007년 경남메세나협회 설립을 주도하였고 지역 메세나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남은행 메세나 담당 임원으로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인연이 깊습니다. 그만큼 경남메세나협회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책임감도 큽니다.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은 메세나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서 문화예술과 기업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Q2 말씀하신대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경남메세나협회가 올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왜 없었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한다는 건 또한 가장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창립 첫 해인 2007년 79개 회원사, 10개 팀 결연, 지원금 7억으로 시작하여 2017년 한해 기준으로 217개 회원사, 165개 팀이 결연하고 지원금 30억 원을 운용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누적 결연 1,000개 팀, 누적 지원금 200억 원 돌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커진 규모만큼이나 책임감도 커졌습니다만 가슴 뛰는 일에 함께 뛰어들고 싶습니다.

Q3 지난 10년 동안 경남메세나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동력은 회원사들과 예술단체 그리고 메세나가 공유하는 상생의 가치에 있습니다. 가치가 같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지난 몇 년간 경제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메세나가 오늘까지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깊은 애정으로 예술을 대하고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죠. 이 자리를 통해 회원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남의 예술단체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메세나의 지속가능한 재원 조성 방식과 투명한 운영이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경남메세나협회는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기업 및 경남메세나협회 지원기금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전체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경기침체, 예산 삭감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매칭펀드 사업으로 회계운영을 유연하게 함과 동시에 꼼꼼한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술단체의 자율성과 기금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Q4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인 성장도 뒤따라야 할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참여기업과 예술단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매칭 비율은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외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현재 창원시와 김해시가 매칭펀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18개 시·군 전 지역의 예술단체들에게 고루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경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Q5 질적인 성장에 더하여 경남메세나의 도약을 위해 또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역시 경남메세나협회의 핵심사업인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사업'입니다. 매칭펀드 결연 사업 확대와 더불어 앞으로는 문화예술소외계층의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더 치열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대중들에게 메세나의 정신을 알리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전국 메세나 네트워크 출범을 통해 타 지역 메세나협회들과의 교류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Q6 기업하는 입장에서 메세나 활동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은행은 오랫동안 지역 문화예술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2007년 경남메세나협회가 출범할 당시에도 초대 회장사를 맡아 기업과 문화예술이 상생하는 새로운 경남 시대를 함께 열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예술의 창의성과 가치를 배울 수 있었고 이를 은행 경영에도 도입하여 성공적인 문화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져올 수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문화경쟁력의 시대'가 도래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는 있지만 이를 어떻게 기업경영과 접목시켜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메세나 활동은 우수한 예술단체를 발굴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문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예술단체와 각종 교류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니 메세나 활동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Q7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각각 어떤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문화예술단체는 또 그들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해 내면서 서로 협력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 경남메세나의 많은 협력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메세나 활동을 함께 해 오신 부분은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단체는 자신들의 활동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훌륭한 작품 창작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념이 꾸준한 활동으로 이어질 때 메세나와의 인연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이에게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에게 멋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8 기업 회원사들과 문화예술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올해에는 메세나 참여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 차원에서 '경남메세나 대상'을 현행 경상남도지사상에서 문체부장관상으로 격상시켜 권위와 품격을 높일 예정입니다. 후원 기업 임직원들의 문화 복지를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와 찾아가는 음악회나 전시회는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지요. 이러한 사업들이 회원사들에게 메세나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Q9 회장님이 그리는 경남메세나의 밑그림이 궁금합니다. 재임기간 중에 꼭 해내고 싶은 일은 뭔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는 전국 메세나 네트워크가 출범될 계획입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 최초의 메세나협회이자 현재까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와 제주 메세나에서도 경남메세나협회를 모델로 하여 출범하였으며 발족을 추진 중인 광주와 부산에서도 우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경남메세나협회가 쌓아온 경험과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메세나 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업이나 예술단체들에게 메세나협회는 친숙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를 더욱 알려서 메세나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문화소외이웃을 위한 행복한 나눔공연 사업도 기존에 요양원 위주에서 벗어나 농어촌 지역, 병원, 군부대 등 공연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곳으로 찾아가고자하며, 횟수도 점차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Q10 회원사와 문화예술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메세나 활동은 회원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아름다운 동행을 핵심으로 하지만 동시에 도민들과의 동행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사는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예술단체들의 활동은 경남도민의 삶의 활력소로 기능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생활 문화의 시대. 문화로 더 행복한 도민들의 삶을 위하여 지자체는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입니다. 함께 뜻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Q11 경남메세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술은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어 줍니다. 우리 협회의 메세나 활동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지역에는 경남오페라단, 고성오광대처럼 전국적인 수준의 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김해를 기반으로 한 극단 이루마는 지난 2016년 베트남에 초청되어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정작 경남도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하고 지역 예술인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경남메세나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글 _ 정인정 / 사진 _ Bao

자연 속 다양한 예술작품과의 조우

나만의 힐링타임
삼진미술관

무더위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또 사람에 지쳐갈 때...
우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끄럽고 소란스런 일상 공간에서 벗어나
조용히 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곳,
미술관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
그곳으로 가는 길에
멋진 여름풍경이 함께 한다면 더 좋겠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1길 13
Tel 055-272-0335
OPEN 10:00 CLOSE 18:00

함안으로 향하는 길, 20여분... 창원 도심을 벗어난 지 오래지 않아 풍경은 어느새 꽤나 여유롭다. 빽빽한 집들과 꼬리를 무는 자동차는 사라지고, 경주하듯 나를 에워싸며 함께 달려가는 산들과 뜨거운 여름 햇볕을 받으며 초록의 무성함을 더해가는 자연의 생명들이 두 눈 가득 푸른 에너지를 전해준다. 한여름의 시골길은 더없이 눈부시고 호젓하다. 뜨거운 풍경 속에서 이름 모를 여름 풀꽃을 따라가다 보면, 추곡저수지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삼진미술관〉이 여행객을 반겨준다.

삼진미술관으로 들어서는 길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 년 전 그 언젠가는 아이들이 뛰놀고 공부하며 꿈을 키웠던 학교였기 때문. 아이들이 떠난 빈 학교를 이제는 다양한 미술작품들이 채우고 있다. 1층과 2층 총 7개의 전시실을 갖춘 꽤 규모가 큰 미술관이다.

여항산 자락에 있는 삼진미술관은, 폐교된 상북초등학교를 단장해 2001년 8월 25일 개관하였다. 학교 정문을 그대로 살려 '삼진미술관'이란 이름을 달아놓은 탓일까, 아니면 운동장 한편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 탓일까, 밖에서 본 삼진미술관은 마치 '학교'에서 열리는 학예회에 방문한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한발 들어서면 느낌이 다시 180도 달라진다. 우선 야외에 전시된 조각 작품 때문이다.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흐드러지게 핀 꽃들과 자연스레 조화를 이룬 작품들은 임형준 작가의 조각상들이다. 언제 어느 계절에 와도 이 꽃들이 이렇게나 아름다울까, 각종 꽃들이 만들어낸 자연의 색깔들과 물감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해둔 키 큰 조형물의 조화도 참 조화롭다. 미술관 안에 들어서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그야말로 미.술.관... 다름아닌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작품들 때문이다. 작은 시골 미술관이란 편견을 깰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입구에 전시된 큰 첼로 작품은 임형준 조각가(경남대 교수)의 작품이며, 안으로 들어서면 '소리'와 '침묵'이라는 주제로 1-2전시관이 이어진다. 특히 '침묵'이라는 주제로 2전시실에 전시된 입술모양의 작품들은 꽤 의미심장하다. 작품 1개의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고... 작품 앞에서 홀로 떠난 여행자는 생각이 깊어진다. 살아오는 동안 나의 말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졌을까, 침묵해야 할 때와 침묵해서는 안될 때를 가려가며 살아왔던가, 스스로에 대한 사색이 깊어지는 시간이다.

1층 3전시실에는 새로이 삼진미술관 관장을 맡게 된 김경미 화가의 작품들이 '빛의 정원'이란 주제로 상시 전시돼있다. 원색의 작품들이 여행자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 마음이 편안해진다. 시시콜콜 말하지 않았지만 일상에 지친 마음을 토닥토닥 다독여

주는 공간, 미술관에서의 힐링을 맛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화, 서양화, 도예,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과 조선시대 사료 300여 점도 전시중이다. 기획전시도 다양하다. 얼마 전까지는 통영의 화가 故전혁림 화백의 아들인 전영근 화가의 작품전이 열렸다.

삼진미술관은 전통공예문화재단이 17년째 운영하는 미술관이다. 3·15의거기념전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전(아트뱅크전), 그리고 개관기념전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초대작가의 개인작품들도 전시하고 있어 언제 찾더라도 새로운 볼거리가 풍성한 숨은 보석같은 미술관이다.



혼자만의 여행길에 올랐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시라. 예술 작품이 전해주는 사색의 시간을 맘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충분히 느낀 후 돌아서는 여행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져 있으리라.





mini interview

삼진미술관 **김경미 관장**



Q. 관장 취임 소감이 궁금합니다!

미술관 일은 종합예술이란 느낌이 듭니다. 평생 화가로서 작품제작과 대학에서 후진양성에 종사했던 저의 부족하고 미흡한 능력이 지역문화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랄뿐이에요. 요즘은 블로그를 보고 일부러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층을 위한 아이템을 연구하면서 인지도를 차차 키워나가면 지역의 멋진 명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삼진미술관 더욱 잘 즐길 수 있는 팁(tip)이 있을까요?

멀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 주세요. 소중한 예술작품을 야외전시장과 전시장 6개실 가득 채워두고 기다리는 곳이에요. 멀더라도 감상하시고 교양과 영혼의 양식이 된다면 시간을 투자해보는 거죠. 특히 자연속에 있으니까요, 혼자서도 데이트나 가족나들이 장소로도 좋습니다. 오셔서 폐교미술관의 운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Q.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전 관장님이 잘 운영해 왔던 미술관이라 그걸 잘 이어갈 생각입니다. 조금씩 배우고 익히며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보려 하고요,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와 나, 우리를 어루만져주는 곳



지족거리 명소
아마도 책방

바다가 그리운 날이 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기에 한없이 품어줄 것만 같은 존재.
그래서일까 수많은 예술가들은 바다를 그리워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여행자들이 바다를 찾는다.
어느 작곡가의 교향시처럼, 또 어느 화가의 화폭에 담긴
그림처럼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곳, 남해바다.
남해의 핫 플레이스 두 곳을 소개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더 좋을 남해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떠나보자.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19
Tel 010-4134-0695
OPEN 12:00 CLOSE 18:00

지족해협으로 유명한 남해 삼동면. 삼동면사무소 근처, 독일마을과는 약 10분 정도 떨어진 '지족 거리'에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독립서점 〈아마도 책방〉이다. 남해가 좋아 책방이 좋아 남해에 책방을 열게 됐다는 주인장.

〈아마도 책방〉이라는 이름은 멀리 남해까지 내려가서 무얼 할거냐는 주변 지인들의 물음에 "음... 아마도... 책방?"이라 답하며 지어졌다고 한다.

〈아마도 책방〉은 여느 서점과는 다르다. 눈길 닿는 곳 하나하나가 참 예쁘고 멋진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공간이다. 가장 먼저 여행객을 반기는 원고지가 그려진 초록색 칠판에 쓰여진 주인장의 손글씨. '너와 나 우리를 어루만져 주는 곳, 여기는 아마도 책방입니다'라는 환영의 인사가 귀엽다. 서점이지만 빽빽하게 꽂힌 책장이 아니었다. 책표지가 잘 보이도록 테이블 위에 놓인 책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책들이다. 그리고 그 위로는 주인장만의 소개 글과 책 속 숨겨진 감동 깊은 글귀가 활자로 찍혀 있어, 이것을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아마도, 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책들을 고르는 데도 주인장의 정성이 꽤나 들었겠구나 짐작이 된다.

책이 진열된 테이블 옆, 그리고 안쪽 2개의 방에도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 편한 소파들과 흔들의자가 '당연히 앉아 보셔야죠' 얘기한다. 진짜 포근한 분위기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행지에서 잠깐 벗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여유롭게 책장을 넘겨볼 수 있는 곳이다. 운이 좋으면 주인장이 내어주는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카페가 아니라서 차를 따로 팔지는 않지만, 주인장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 아마도.



B급 감성이 A급 추억이 되는

소소한 즐거움
B급 상점

애써 찾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B급 상점.
그럼에도 굳이 방문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버려진 물건에 뚝딱뚝딱 마법을 부려 업사이클링(up-cycling)
소용했던 시골 동네를 북적이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고 있다.



경남 남해군 남면 남면로66번길 41
Tel 055-864-6638
OPEN 10:00 CLOSE 19:00

인상 깊은 여행지... 그곳에서 가지고 온 '추억의 물건'은 참 의미 깊다. 여행지에서의 즐거운 기억을 함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해 여행에서 이런 추억의 물건을 찾는다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 여행객 사이에선 이미 소문 자자한 〈B급 상점〉이다.

남해 석교마을에 위치한 B급 상점은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파란 간판과 파란 대문이 예쁜 곳이다. 상점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어린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서 봤음직한 쟁반에 구수한 보리차를 담아 내주시며 정겹게 맞아주신다.

독특한 문양과 디자인의 러그,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 패브릭 제품들... 드림캐쳐, 나무를 이용한 소품 등 정말 갖가지 물건들이 있다. 이곳에 나무로 된 소품들이 특히 많은 이유는 주인장이 목공예가라고. 이곳에서 파는 목공예품들은 대부분 주인장이 직접 만든 거라고 한다.

또 여행 정보도 많고, 남해의 명소들을 그려 넣은 엽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책들도 있다. 대부분 독립출판물들이다. 평소 일반서점에서 만나지 못하는 책들이어서 더 소장가치가 높을 지도 모르겠다.

굳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좋다. 그냥 〈B급 상점〉 그 자체로 여행지의 새로운 볼거리인 셈이다. 그야말로 눈이 즐거운 곳이다. 익숙한 여행지에 이렇게 새로운 즐길거리가 생겨난다는 건 참 즐겁고도 신기한 일이다. 주인장과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즐거운 여행지의 추억으로 남을, 그런 공간이다.



엄마아빠의 추억이 아이들의 추억으로

모두가 즐거운 체험여행
합천영상테마파크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가장 많은 여름 휴가철.
아이와 어른이 함께 떠나는 여행은 여행지를 선정하는
일부터 고심하게 된다. 아이도 즐겁고 어른들도 흥미로운
여행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의 취향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나름의 재미를
줄 수 있음직한 곳이 있다.
어른들에겐 추억을, 아이들에겐 재미를 주는 그곳,
합천영상테마파크로 가자!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
Tel 055-930-3743
OPEN 19:00 CLOSE 18:00



합천호의 비경이 눈을 시원하게 해줄 무렵 합천영상테마파크를 만나게 된다. 합천영상테마파크는 2004년에 세워진 시대극을 위한 오픈 세트장. 1920년대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 근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수많은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들이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되었다.

처음 이곳 세트장이 유명해진 것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흥행과 함께였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장동건과 원빈 두 배우가 열연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천만영화의 문을 연 이 영화의 주요 촬영장소가 이곳 합천영상테마파크와 합천 황매산 일대.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의 영화세트장은 한번 촬영하고 나면 모두 철수해버리고 없어지기 마련이었지만, 합천군은 그 후 15년 동안 이곳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드라마 〈서울 1945〉, 〈경성 스캔들〉, 〈시카고 타자기〉, 〈비밀의 숲〉, 〈화유기〉, 〈미스터 선샤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상륙작전〉, 〈박열〉, 〈택시운전사〉 등 이곳에서 촬영한 작품은 190편에 이른다. 촬영이 없는 평소 합천영상테마파크는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합천영상테마파크는 매표소를 지날때면 마치 시간여행의 문을 통과하는 기분이다. 초입엔 위치 안내판이 있다. 복잡해보이지만 길 구조는 단순하다. 하지만 워낙 넓은 곳에 구석구석 건물들이 배치돼 있으니 안내판 체크는 필수! 미리 사진 한 장을 찍어두고 관람하길 조언한다. 초입에 위치한 반도호텔, 경성라디오 방송국, 경성역을 보고 있노라면 일제강점기 1920~30년대로 혹 들어온 듯 기분이 묘하다. 또 이곳 초입에서 어린이 여행객을 반기는 것이 바로 전차! 운이 좋으면 운행시간에 맞춰 시대극 속 주인공들이 탔던 전차에 몸을 실어볼 수도 있다. 어린이 방문객에겐 동화 속에 들어온 듯, 혹은 외국으로 온 듯한 기분일지도 모르겠다.

7080 서울 종로거리를 재현해놓은 거리도 이색적이다. 건물도 건물이지만 문방구, 로봇태권브이 벽화 등 어린 시절 추억을 돋우는 각종 소품들이 넘쳐난다. 특히 곳곳에 교복을 입은 사람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직접 교복을 대여해서 입고 사진을 찍으면 정말 마치 옛날로 돌아가 그곳에서 찍은 사진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추억의 장소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남기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이다.

영화, 드라마 세트장 가운데 합천영상테마파크만의 특별한 거리를 또 하나 만날 수 있다. 바로 '전쟁터'. 처참하게 부서진 건물들과 황폐해진 거리들, 그리고 그 시절 실제로 사용되었던 비행기를 만나볼 수 있다.

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의 관광이 즐거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몇 가지 체험이 함께 한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단연 인기가 높은 장소는 종로교도소이다. 종로경찰서에 마련돼 있는 교도소 체험은 직접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투명판을 맞대고 전화기로 대화를 주고 받는 면회장면도 직접 재현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체험장이다. VR 체험관은 이곳에서 가장 현재적인 장소. 아이들은 마냥 신나겠지만 어른들은 다소 어지러움증을 호소할지도.

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 놓치면 안되는 곳이 바로 청와대 세트장이다. 뒤쪽에 입구가 따로 마련돼 있어 자칫 놓칠 수 있으니, 미리 꼭 챙기는 것이 좋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청와대 모습과 꼭 닮아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기자회견장, 각종 회의장 등 지금까지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대부분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직접 앉아 잠시나마 대통령이 된 기분도 낼 수 있으니 이 또한 즐거움...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훗날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티켓이 있으면 청와대 세트장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반대로 청와대 세트장 티켓이 있으면 합천영상테마파크를 무료로 구경할 수 있다.



체험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합천영상테마파크는 단순한 영화 세트장을 떠나 어른들에게는 어린시절 추억을 되새기는 장소로, 아이들에겐 특별한 놀이터로 기억될 것이다.

물위를 거닐고 싶은 한그루 나무는
오래전에 갈 곳을 잃어버리고
제 모습 물에 비춰보며 탄식에 잠기어 있다
구겨진 가지 사이로 물결이 일고
하얀 뿌리는 하늘에 닿아있다...

사진가 _ 김관수(경남국제사진페스티발 운영위원장)



글 _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이기언 과장
사진자료 _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들과 이야기 해 본 적 있나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지역)의 협업에 기반을 둔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회의 예술적 개입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욕구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며, 예술인들의 미적활동과 기업의 지향점이 매칭됨으로써 사업이 성립된다. 2017년 한 해 동안 모두 1,000명의 예술인들과 287개의 기업·기관이 "예술적 개입을 통한 혁신"을 고민하고,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하였다.

2017년 9월 22일(금)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제 세미나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 창출〉에서 지오바니 쉬우마(Giovanni Shiuma) 교수는 '성공적인 창조적 파트너십의 형성'이라는 기조발제로 예술인의 개입이 조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혁신시키고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사업을 아시나요?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 본연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경제적 효용도 누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기관들이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를 몸소 체험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구체적 바람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다. 어느덧 5년째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기업–예술인 매칭에 앞서 예술인과 그의 역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과 해당 예술가의 역량을 발휘하여 할 수 있는 일 또는 그 역량을 발전시키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한다

2 경영의 정점에서, '예술적 개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가능성을 제공하여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드러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 전 분야에 창조성과 예술성을 접목하여 기업문화 혁신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회자되는 경영에 대한 '예술적 개입'을 경영 차원이 아닌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접근한 것이다.

시혜적 후원을 넘어서 기업 경영의 정점에서 예술적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 담당자와 예술인들은 "새롭고 낯선 분야의 예술인들과의 활동이 만들어낸 상호간의 성장과 변화 경험"을 이 사업의 가장 큰 의미로 꼽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메세나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후원의 관점을 예술인들의 삶 자체에 두고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하여 그들의 삶에 직접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메세나의 취지를 바로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술과의 협업에 통역이 필요

3 '예술인들과의 소통, 어렵지 않나요?'

기업 담당자들에게 예술과 협업을 말하면 흔히 '아트 콜라보레이션(art collaboration)'을 떠올린다. 유명한 예술가가 제품 외관 디자인을 맡는 다소 편협한 차원의 기업–예술인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개입의 범위를 막론하고 '협업'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말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말하는 '협업'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다. 경영, 홍보, 마케팅, 사회공헌, 조직문화에 걸쳐 기업 내부의 이슈가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만 '협업'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또는 각 부서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슈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이슈들이 예술적 시선들과 마주하게 되면 충돌, 갈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로운 분야 간의 첫 만남이기 때문이다.

이 때,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퍼실리테이터는 기업 경영에 예술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기업 담당자와 예술인 사이에서 마치 중매를 하는 사람처럼 상황을 조율하며 양자 간의 화학적 작용을 촉진한다. 예술인들 중에서도 감독, 연출, 기획 등 협업의 경험이 풍부한 예술가들로 구성된 퍼실리테이터들은 기업과 예술인의 미팅을 주선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매끄러운 소통을 돕는다. 예술의 언어와 기업의 언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들과 이야기 해 본 적 있나요?

협업이란 조율의 연속, 그 끝에 상생(相生)이 있다. 4

사업이 진행되는 약 6개월간 예술인들은 기업의 이슈를 예술가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기업은 예술인들의 사유방식, 활동방식을 간접 체험한다. 먼저 협업 주제를 구체화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무척 중요하다. 기업은 기업의 문화를,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세계와 예술적 시각으로 바라 본 기업의 모습을 약 2개월 동안 공유하고 협의하며 생각을 조율한다. 여기에 퍼실리테이터들의 역할까지 더해져 조율의 과정은 자발적 동력을 얻는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예술인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후원기업이라는 이미지 형성에 만족하는데 그쳤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도입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기업들은 예술인들의 창조성을 수용하고 이를 경영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후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기업은 예술인들의 시선을 적극 반영하여 경영, 영업, 조직문화, 홍보에 걸쳐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하고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발굴해내며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과 예술인들이 상생하게 되었다. 예술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대가 어둡더라도 꿈을 꾸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도전한다.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뉴스가 매일 쏟아져 나오는 요즘이다. 어쩌면 예술인들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기업에게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메세나를 다시 생각하다. 5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메세나를 통해 문화예술을 후원한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메세나 후원방식은 다소 일방적이고 시혜적이지 않은가 묻게 된다. 예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후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라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때가 많다. 정작 기업 직원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메세나 회원사인지 어떤 예술인(단체)을 후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메세나라고 정의할 때, 기업 스스로 이 의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후원 단체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지 자문하길 바란다. 많은 기업들이 변화와 혁신을 외친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예술인들의 시각을 통해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예술인들의 상상력은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기업 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변화를 가능케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창립된 지 24년, 경남메세나협회가 활동을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다. 메세나의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메세나로 거듭나기 위해 이제 예술인들과 마주앉아 이야기 할 때이다.

참여의 방식은?
"어떻게 예술인들과 협업을 할 수 있나요?"

매년 초 참여기업과 기관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시작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공고를 통해 선발된 예술인들과 참여를 신청한 기업·기관들과의 매칭(matching)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인건비 부분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소정의 예술인 활동비를 지원한다. 다만, 대규모의 재료비나 진행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율을 거쳐 기업 측이 부담할 수도 있다.

분명 기업의 입장에서 예술인들과의 직접적인 협업은 새로운 도전이다. 망설여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리스크에 대한 걱정은 일단 접어 두자. 관심이 있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예술가치확산팀으로 문의하면 참여 방법과 절차, 사업의 진행 방식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 02) 3668-0240~5 www.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모든 예술인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하여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12년에 설립된 공공 재단입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공정한 예술시장 구현을 위해 출범 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산재보험,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보장과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등 창작 및 직업역량강화 그리고 예술인 신문고,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 성폭력피해 상담센터 운영 등 불공정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더불어 향후 시행될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자금 융자 제도인 예술인 복지금고 등의 신규 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복지 실현'을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기업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사례 : (주)센트랄

- **기업 소개 : 경남 창원 소재의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 **기업의 '예술적 개입' 요구**
  -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개인의 자기계발과 조직문화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
- **참여예술인 : 김보경(미술), 김시우(미술), 장하윤(미술)**
- **퍼실리테이터 : 손상민(연극)**
- **사업 내용 : 미술 워크숍 〈일상이 된 예술〉 프로젝트 진행**

세부적으로는 회화 워크숍 〈각양각색: color the life〉, 설치미술 워크숍 〈무모한 예술: 설치미술 도전기〉, 사진 워크숍 〈출사동락: 나도 사진작가〉까지 3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매주 화, 목요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결과물들을 미니갤러리 및 사내 공간에 전시하여 시각적으로 생기를 더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직원들은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업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글 _ 진강숙 / 사진 _ Bao

경남필하모닉
청소년관악단
×
강민(주)

제4회
경남필하모닉 청소년관악단 정기연주회



소리를 담자.
클래식의 웅장함과 추억 돋는 영화 속 OST.
끝없는 객석의 환호!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 트럼펫터
안희찬의 명연주를 직접 듣는 뜻하지 않은 선물까지...
3월 17일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에는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음률과 응원과 웃음이 넘쳤다.

신나게 벌어진 판! 판! 판!

"한번만 들으면 팬이 될 겁니다!" 자신에 찬 안희찬 지휘자의 말을 들을 때 까지만 해도 사실 '반신반의'였다. 하지만, '판 벌려~!,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악단!'이란 주제로 열린 제4회 경남필하모닉 청소년관악단 정기공연의 1부가 끝나고... 이미 팬의 마음으로 2부를 기다렸다. 관악의 미래를 마주하며 제대로 바람이 들었다. 수준 높은 관악합주곡들의 협연이 지나고, 2부 '판벌려! 이번 판은 추억 돋고 흥 돋는 웃음판!'. 청소년 단원들의 훌륭한 연주와 흥겹고 멋드러진 퍼포먼스, 그리고 재치 있는 주원배 음악감독의 깜짝 출연으로 연주회장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환호가 넘쳤다.

"조카가 와서 매번 듣는데,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어 좋아요. 선곡도 다양한 장르를 섞어 연주하니 누구나 즐겁게 감상할 수도 있어서 좋아요."

"아이가 취미로 클라리넷을 해요. 평생 취미로 즐기고 싶어해요. 무대 오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친구 연주 보러 왔어요. 작년에도 왔는데, 친구가 무대에 서면 평소랑 좀 달라 보여요."

"안희찬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 설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이끌어간다는 강예슬 지휘자와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고맙고 영광"이라는 단원과 학부모들. 그렇게 관악을 매개로 대한민국을 이끌 선후배는 끈끈하게 다져진다.

함께하는 발걸음 강민(주)

열정과 실력 모두 갖춘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악단은 올해, 큰 응원군을 만났다. 바로 경남메세나협회다. 대한민국 관악의 미래를 이끌 연주단체와 지역의 견실한 중소기업 강민㈜! 새벽하늘 깨우는 감미로운 트럼펫 선율처럼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길 바란다. 열정 가득한 창원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관악계의 중심이 되는 그 날을 고대한다.

끝으로 안희찬 지휘자는 경남음악협회에 한 가지 부탁을 남겼다. 해마다 이뤄지는 경남음악상 선정 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팀도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지역 후배들을 챙기는 그의 마음이 오롯이 녹아들었다.

창원을 중심으로 진주·하동 등 도내 초중고 65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악단은 2013년 '경남 엘시스테마 청소년관악단'으로 창단했다. 올해로 네 번째 정기연주회지만 전공자 못잖은 훌륭한 연주와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흥겨운 퍼포먼스로 객석을 들었다 놨다하는 이들을 보면 묻지 않아도 알게 된다. 창단 후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지...

관악의 현재와 미래가 만나다

"아마 청소년 아마추어 관악단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할걸요?" 애초부터 클래식을 위해 만들어진 깊이 있는 곡들을 순식간에 습득해버리는 초·중·고생들을 보며 소름이 돋는다는 안희찬 지휘자. "이 지역 청소년들이 이렇게 훌륭한 재주를 갖췄는데, 그동안 기성세대들이 기반을 마련해주지 못해 안타까웠죠.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좋은 연주 들으며 이렇게 배운 후배들은 저보다 큰 연주자로 더욱 더 큰 무대에 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단체와 후배들을 세상에 소개하는 메신저가 돼야죠."라며 후배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학부모님들과 단원 모두 마찬가집니다. 무슨 일이든 내 일처럼 나서서 추진하죠." 모든 것을 자신의 몫으로 여기는 소속감이 단체를



경남솔로이스츠
×
(주)칼텍코리아

경남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다. 비가 오는 날은 사실 좀 번거롭지만 한편으로는 비가 갈라진 땅을 적셔주고 꽃나무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주니 반갑다. 특히 오늘의 비는 클래식 문외한이 클래식 공연을 보러가는 부담감을 씻어줬다.

관객의 마음을 보듬는 실내악의 매력

경남 솔로이스츠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실내악 연주단체로 실력있는 연주가들이 팀을 이뤄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바로크에서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경남 솔로이스츠가 고향의 그리움을 담은 곡들을 선보였다. 봄비로 센티멘탈해지는 마음에 딱 어울리는 공연이라고나 할까..

첫 곡으로 들려준 도흐나니의 '피아노 5중주 1번(Erno Dohnanyi Piano Quintet No.1 Op.1)'은 조금은 지루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의외로 생동감이 느껴지는 곡이었다. 격정적인 피아노와 현악기 저음의 멜로디가 곡의 시작을 알리고, 열정 가득한 분위기는 곡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내재된 정열을 느끼게 했다.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 표정도 곡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게 신기했다. 말랑말랑한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면과 얼음처럼 차가운 면이 공존한다는 도흐나니의 스타일이 물씬 묻어나는 연주였다.

두 번째 곡은 좀 더 대중적인 곡이라고 할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드보르작의 곡이였다. 드보르작의 대표작은 '신세계로부터'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곡으로 자주 연주된 '현악 4중주 12번 'Antonin Dvorak String Quartet No.12 Op.96' American)'이다. 드보르작은 뉴욕의 내셔널음악원 초대원장으로 있는 동안 심한 향수병에 걸렸다고 한다. 이 곡은 아이오와주 스필빌 마을에서 만든 작품인데, 이 곳은 보헤미안 이민자들이 많아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줘 작곡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곡의 형식과 내용이 아주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럽게 손과 발이 리듬을 탔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특히, 곡 중간에 민요적인 요소들이 느껴지면서 고향의 향수를 흠뻑 전해줬다.

공연을 마치고 실내악 연주를 들으면서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아름답고 좋아서 혼자만 알고 즐기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득히 멀게만 느껴진 위대한 음악가들도 평범한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삶에 대한 진한 열정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습이 음악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음악은 쉽게 우리의 마음과 분위기를 달라지게 한다. 흥분하고 힘이 솟게 하는 음악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편안하도록 피로를 풀게 하는 음악이 있다. 집중하도록 돕는 음악도 있고, 잠잘 준비할 때 들을 수 있는 음악도 있다.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그 날의 기분과 에너지가 달라지곤 한다. 경남 솔로이스츠가 전해주는 음악이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물론, 힘겨운 삶에 위로를 받고 싶은 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칼텍코리아와의 아름다운 동행

칼텍코리아 경남지사 문성일 지사장은 기업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 칼텍코리아는 제조업 작업 공정에 필요한 절삭유를 판매하고 있다. 쉽게 말해 쇠를 깎아서 뭔가를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작업 칼을 좀더 오래 쓰게 해주고, 또 좀 더 잘 깎이게 하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윤활유인 셈이다.

문성일 지사장은 2년전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경남솔로이스츠와 매칭펀드 결연을 맺게됐다고 한다. 지난 5월 16일 경남솔로이스츠 정기공연 현장에서 문성일 지사장과 김은진 대표가 짧은 만남을 가졌다. 이 날 정기공연은 '향수'라는 주제로 바로크에서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곡들을 선보였다.





문성일 지사장
저는 클래식 문외한이였습니다. 오히려 제 전공은 전 국민이 좋아하는 '트로트'였죠. 피아노를 전공한 집사람 덕분에 조금씩 클래식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클래식은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듣다보니 어느 순간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김은진 대표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듣기 불편하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형화된 무대 공연보다는 작은 무대에서 관객과 호흡하면서 하는 공연을 더 선호합니다.

문성일 지사장
경남 솔로이시츠와 인연을 맺은지 2년짼데요. 기업활동을 하면서 삭막한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고 삶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할 때 경남 솔로이스츠를 만났어요. 덕분에 제 삶이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김은진 대표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특히 창원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된 상황에서 저희 같은 클래식 연주단체들은 사정이 더욱 어렵죠. 때문에 칼텍코리아와의 매칭펀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서툴러서 죄송한데 정말 많이 고맙습니다.

문성일 지사장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오늘은 지인과 함께 왔지만 다음에는 직원들과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께요.

김은진 대표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음악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유연한 음악 정서를 키울 수 있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접한다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편안하게 클래식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기대를 해보구요. 기업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의 긍정적인 영향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만큼 우리 감성을 따뜻하게 하는 클래식 공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_ 정인정 / 사진 _ Bao

연극으로 맺어진 14년 의리
평생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지자

PS엔터테인먼트 & 극단 이루마

지난 7월 15일, 한여름 폭염보다 더 뜨거운 무대가 창원을 흔들었다.
10대들을 사로잡으며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아이콘으로 떠오른
'고등래퍼' 탑5의 무대 '슈퍼루키' 공연이 전국 투어 11번째 도시로 창원을 찾았던 것.
이 무대를 기획하고 만든 사람은 바로 PS엔터테인먼트 좋은콘서트 최민선 대표이다.
그리고 항상 그의 무대를 몸으로, 마음으로 돕고 있는 극단 이루마의 이정유 대표.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궁금하다.



14년전 극단 이루마를 함께 만든 최민선, 이정유 대표

올해로 9년째 메세나 결연을 맺고 있는 PS엔터테인먼트와 극단 이루마. 전국을 누비는 공연기획사와 김해에 본거지를 두고 경남을 무대로 뛰는 연극 극단의 만남은 사실 쉽게 예상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무대'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니 이렇게 저렇게 만났나 보다 생각되겠지만, 사실 이들의 인연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됐었다.

최민선 대표 : 제가 김해고등학교 2학년일 때, 처음 연극 시작하면서 만났죠. 그 인연이 쭉 이어진 것이고 2004년에 극단 이루마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창단 멤버였죠. 군대 제대했을 때 절 찾아오셔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이정유 대표 : 당시 이 친구가 장교로 제대를 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전부 극단 창단에 쏟아 부었죠. 그 돈으로 지하에 세를 구할 수 있었죠.

두 사람이 직접 '극단 이루마'의 공연장을 모두 꾸몄다. 조명, 객석을 만드는 일을 물론, 페인트 칠, 못질 하나하나까지하며 손수 만들었다. 창단공연을 위한 포스터 작업까지 두 사람의 손끝을 거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었다. 최민선 대표와 이정유 대표는 14년 전 그때의 일이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 말한다.

최민선 대표 : 처음 극장 만들 때 지하에서 둘이 페인트 칠하다가 죽을 뻔 했죠. 더운 여름에 페인트를 시서 직접 수작업을 했는데, 당연히 수성페인트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성페인트였던 거예요. 한 6시간쯤 작업하고 나와서 막걸리를 한잔 마셨는데,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고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포스터 작업하다가는 칼에 손가락이 반쯤 잘렸다니까요.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PS엔터테인먼트 "무대와 가장 닮은 직업을 찾은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공간, 그 무대를 최민선 대표는 집안 사정 때문에 떠나야만 했다. 장남이었고 어려워진 가정 형편을 책임져야 했던 상황, 나몰라라 가난한 연극무대만을 고집할 수는 없었다.

최민선 대표 : 연기하다가 '외도'한다는 그런 생각이 싫어서 가장 무늬가 비슷한 직업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무대와 조명을 떠나지 않고도 비즈니스가 되는 일을 선택한 거죠.

누구보다 무대를 동경하고 또 무대를 잘 아는 그는 당시 한창 인기를 끌던 개그콘서트를 부산과 창원등지에 가지고 내려오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이승환, 이승철, 박진영, 변진섭, 김경호, 부활 등 이 지역에서 펼쳐지는 웬만한 가수들의 콘서트는 거의 다 그의 손을 거쳤다. 또 내한 공연도 많이 가지고 들어왔다. 공연기획에 있어 그의 촉은 확실했다. 무대를 만드는 실력이 있으니 사업은 잘 풀렸다.

이정유 대표 : 무엇보다 극단 이루마를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왔죠. '이거 하려는데...'하고 상의를 하면 "아 형님 하세요. 걱정 말고 하세요." 했죠. 민선이 사업이 잘된 덕분에 극단 이루마가 잘 클 수 있었습니다. 일단 월세 걱정 안하고 작업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원래 연극 무대 꿈꿨던 친구라 연극에 투자도 많이 했어요. 서울 합정동에 극장도 만들고, 연극 대본 쓰고, 작품을 올리기도 했죠.

극단 이루마, "PS가 있어서 행복하게 연극할 수 있어요"

메세나로 묶이기 전부터 이미 이 둘은 함께였다. PS엔터테인먼트의 성장과 함께 덩달아 극단 이루마도 자리를 잡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지금은 경남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극단이 되었다. 50평짜리 지하에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소극장 국비 지원'으로 60평짜리 반지하로 옮기게 되고, 또 경남 우수예술단체로 선정돼서 지원받아서 또 작품하고, 지금은 지상 3층에 70평이나 되는 공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객석, 사무실, 분장실도 있고 심지어 탕비실도 갖추고 있다고. 소극장을 너댓 번이나 짓다보니 이제 전문가가 다 되었다고 웃는 이정유 대표.

힘든 시절엔 창고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기업도 있었고, 경남 우수예술단체 선정할 때는 열심히 PPT작업해서 쫓아다녔다. 다들 안된다 안된다 했지만 16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일일이 드렸고, 감사하게도 6개 시군에서 선정이 되었다. 지금은 진영 한빛도서관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프로그램으로 정기공연을 올리고 있다.



/ 극단 이루마 이정유 대표

이정유 대표 : 라면 대신에 밥 먹으면서 연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고맙죠. 특히 최대표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극단 이루마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지역 여건이 힘들다는 것, 또 제작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최대표가 사실 많이 도와주었죠. 콘서트에서 돈 벌어서 연극에 투자 많이 했습니다.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죠. 〈선녀씨 이야기〉가 지역에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대학로에서 한달 정도 공연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임호씨 진선규씨 같은 배우들이 작품에 참여하고 클 수 있었던 것도 뒤에 PS엔터테인먼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럴 때마다 손해는 다 보죠.

최민선 대표 : 우리 지역 극단들이 갖고 있는 핸디캡들이 있어요. 지원금을 받아서 어려운 여건에서 연극 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돕고 싶은 거죠.

1996년부터 서로 함께 해왔던 PS엔터테인먼트와 극단 이루마는 9년전부터 메세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또 한번 더 맺어졌다.

이정유 대표 : 최 대표는 '아유, 형님... 그냥 도와드릴게요' 했지만 아 이런게 있는데 한번 해보자, 메세나의 1대 1 매칭이라는 게 민선이가 300만원 도와주면 도에서 또 300만원을 더해주는 거니까, 이왕 하는 거 이렇게 하자 해서 준비해서 결연을 맺은 거죠.

최민선 대표 : 해외에서 하던 사업도 망하고, 서울에서 펼치려던 연극이 자꾸 엎어지고 엎어지면서... 아 이건 안되는구나 하는 시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극단 이루마를 도우면서, 저는 콘서트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유 대표 :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도 최 대표가 다 해줬어요. 지역에 있는, 특히 경남에 있는 선배들 후배들은 그 고마움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9년 동안 결연하면서 절대 극단 이루마에 대한 지원은 놓치지 않고 있죠.

극단 이루마 × PS엔터테인먼트

"극단 이루마가 맘 편히 연극할 수 있게"
"PS엔터테인먼트에 누가 되지 않게"

동반자를 넘어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지지자인 최민선 대표와 이정유 대표. 연극이 좋고 무대가 좋은 연극 선후배 사이, 친형제 보다 더 끈끈한 5살 터울의 형과 동생이다. 두 사람이 함께 한 시간만큼 기억에 남는 작품들도 많을 터. 극단을 만들고 처음 무대에 올렸던 〈늘근도둑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두 사람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이정유 대표 : 창단 10주년때 같이 하자고 했는데 지나가버렸어요. 20주년때는 꼭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 호흡이 워낙 잘 맞으니까 이마 대박이 터질 겁니다.

최민선 대표 : 혼자 생각중인 건데, 더 탄탄해지고 내공이 쌓이면 '손턴 와일더'의 〈Our Town(우리 읍내)라는 작품을 다시 하고 싶다. 무대감독이 혼자 끌고 가는 작품인데, 예전에 한번 했었죠.

이정유 대표 : 배우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죠. 하하.

스스럼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한 기업의 대표와 한 극단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14년지기 형과 아우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 주고 있다.

최민선 대표 : 극단 이루마의 자생력 있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항상 제 편이 돼 주는 분이니까요. 극단 이루마가 작품 잘 할 수 있게 도와야죠.

이정유 대표 : 우스갯소리로 우리 기업 대 예술단체로 봐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늘 걱정하고 챙겨주고 궁금해하는 친형제 같은 사이니까요. 때론 멘토가 돼주기도 하고요. '극단 이루마', 'PS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하면 '아우 예~'하고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해 내야죠.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냐는 마지막 질문에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대답하는 최 대표의 말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며 농담을 던지는 이정유 대표. 호탕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한 의리와 끈끈한 애정이 느껴진다. 열정 가득한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앞으로의 작품들이 기대된다.



/ PS엔터테인먼트 최민선 대표



/ 극단 이루마

글 _ 정인정 / 사진 _ Bao & 벨라미치 예술단

아름다운 친구들, 최고의 마이너리그

공연을 넘어 교육의 무대로
벨라미치 예술단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 한 오페라 무대가 6월 초여름 밤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지난 6월 1일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 〈오페라 속 여인의 생애와 죽음〉이 바로 그것.
이탈리아 정상급 연주자와 지휘자가 함께 한 이 공연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예술단체가 기획, 연출한 무대였다.
관객에게 클래식의 즐거움을 알게 한 벨라미치 예술단... 이들이 궁금하다.
벨라미치 예술단에서 총감독을 맡고 있는 창원대학교 김동순 교수를 만났다.

암전된 객석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듯 조용했다. 암흑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만이 무대를 향한 채 반짝이고 있었다. "객석을 비추는 모니터가 있는데,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객석이 비어 있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인터미션에도 움직이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무대에 몰입했다는 거죠." 벨라미치 예술단의 총감독인 김동순 교수는 그날의 무대를 새로운 경험이라며 놀라워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라 트라비타〉, 〈라 보엠〉 세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여인들의 색채를 한 이야기 흐름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다. 이 무대는 지엠아이와 센텀 산부인과 그리고 경남메세나협회가 매칭펀드를 통해 지원한 프로젝트로 벨라미치 예술단원들과 멀리 이탈리아에서 온 성악가들과 지휘자가 함께 만든 특별한 무대였다.

우리말이 아닌 원어로 된 정통 클래식 오페라 공연. 과연 관객이 얼마나 와줄까?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확신은 없었다. '대중화', '관객 호응도'라는 명분으로 지역 클래식 공연은 차츰 퓨전화 되어가고 점점 더 소프트해지는 분위기이다. 그런 와중에 정통 클래식을 고집한 이번 무대는 벨라미치 예술단 입장에선 도전이었고 모험이었다. 최선을 다해 무대를 만들 뿐 어떤 기대도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다. 1,200명을 넘어선 관객은 2층 객석까지 들어찼다. 사람들은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혹여나 지루할까봐 줄이고 줄인 1시간 40분여의 공연시간이 너무 짧다며 이구동성으로 아쉬움을 전했다. 수십 년, 수백 번 무대에 섰던 김동순 교수도 이번 무대에 대한 관객의 반응이 아주 놀라웠다.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말 공연이 아니라서 사실 관객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나오는 에너지,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의 에너지에 관객들이 몰입하는 거니까요. 그만큼 관객들이 몰입했으니 정말 성공한 공연인 셈이죠."



아름다운 친구란 뜻의 '벨라미치' 2007년 창단, 10여년간 자립해 온 지역 공연예술단체





벨라미치 예술단은 2007년 김동순 교수가 마산시립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던 당시 만든 예술 공연 단체이다. 창원대학교 음악학과 김동순 교수를 중심으로 그의 선후배와 제자들, 그리고 지역에서 예술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모여 지금까지 크고 작은 무대를 이어오고 있다.

'벨라미치'는 이탈리아 말로 아름답다는 뜻의 '벨라(bella)'와 친구를 지칭하는 '아미치(amici)'가 합쳐진 단어이다. 풀이하면, 벨라미치는 〈아름다운 친구들〉이란 의미다. 정식 이탈리아어로는 '본 아미치'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였으니, 뜻이 통한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학교에 있다 보니, 틀 속에서 아무래도 제약이 있었죠. 좀 더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선후배들이 모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벨라미치가 되더군요."

창단 공연은 또 한명의 '아름다운 친구'가 되어 준 (주)동환산업과 함께였다. 연습실 조차 마땅치 않았던 당시에 (주)동환산업은 지하 홀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그렇게 준비한 창단 공연은 뮤지컬 〈맘마미아〉 갈라 콘서트. 예술 공연 단체 자체가 부족한 지역에선 꽤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이후 벨라미치는 10년 동안 자립해왔다. 지역 페스티벌은 물론, 찾아가는 병원 공연, 토요상설무대 등 크고 작은 무대를 가리지 않았다. 마음껏 음악 할 수 있는 곳, 가까이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즐겁게 공연했다. 그렇게 이어온 역사가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어섰다.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되는 만큼 욕심부리지 않고 그것만큼의 무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만큼 다 무대에 올리는 거죠."

지난 10년간 특별한 메세나 후원 없이도 벨라미치 예술단이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비법은 어쩌면 '벨라미치'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다.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하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친구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만 마음을 모아준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10여년 '벨라미치'를 지탱해온 기둥들이었다.

그 중심 기둥은 단연 총감독을 맡고 있는 김동순 교수였다. 출발부터가 그랬다. 애초부터 김동순 교수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그의 인적 네트워크가 벨라미치 예술단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심플한 마인드는 '벨라미치 예술단'이라는 배를 움직이는 돛대 같았다. "좋아, 까짓것 해보지 뭐. 해봅시다.", "다 해보자고요~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심플하게 생각하면 안될 게 없다고,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말하는 김동순 교수. 그의 마인드에 공감하는 아름다운 친구들이 만들어 낸 최고의 공연은 단연 이번 오페라 무대였다.

김동순 교수와의 인연으로 이탈리아의 정상급 지휘자와 성악가 3명이 국내 무대를 함께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영어로 〈프렌드 쉽(friendship)〉이란게 이탈리아 말로〈아미치찌아(amicizia)〉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일종의 품앗이죠. 서로 서로 공연을 돕는 거죠. 그네(이탈리아)들은 '아미치찌아? 콜?' 하면 '오케이' 한다. 대신 그네들이 '아미치찌아?' 하면 나도 응해줘야 하는 거죠. 내가 언젠가 갚아야 할 것들이지만 갚으면 됩니다. 우리 벨라미치가 이 아미치찌아 정신으로 계속 이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에듀케이션의 무대로, 기꺼이 마이너리그라 되리라





/ 벨라미치예술단 김동순 대표

벨라미치 예술단에게 이번 공연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다. 하나는, 정통 클래식으로 어떻게 무대를 만들어야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해답을 찾았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또 하나는 제자들과 지역 후배들에게 교육의 저변을 넓혀다는 점이다.

이번 벨라미치 예술단과 함께한 지휘자 마리아노 파띠(Mariano Patti)는 이탈리아 국립음악원 지휘과 교수이다. 즉 세계 정상급의 지휘자가 지역의 오케스트라를 이끈 것이다.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연주자들에겐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였다. 공연에 참여한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3명의 성악가 역시 우리 지역의 성악가들과 함께 어울려 호흡을 맞추었다. 이 또한 지역의 인재들에게는 꽤나 큰 자극제가 되었다. 어디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귀한 경험이며 특히 지역 무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소중한 기회였다. "세계적인 지휘자가 우리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교육하고 연습했습니다. 음악도 달랐어요. 이탈리아의 오케스트라는 사운드가 모래 위에 물을 뿌리면 물이 잦아들듯이 오케스트라가 싹 가라앉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그런 오케스트라 연주가 훌륭했다고 얘기한 분이 많았습니다."

창원에 내려와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도 벌써 20년. 하고 싶은 공연을 하기 위해 벨라미치 예술단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예술단을 끌고 온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육'이었다. 그는 무릇 선생님이셨다.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는 학생들 공부를 위해 또 제자들의 무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 깊었다. "공연 자체보다는 교육에 관심이 크죠. 흐름을 제대로 선도하기 위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 교수이니까 '교육'인거죠."

20여년간 그를 거쳐간 제자들만 수백명, 첫 제자들은 벌써 교수급으로 성장했으며 외국 무대는 물론 국내 기성 성악 무대에서 활동하는 제자들도 수두룩하다. 그는 무대에 서는 것은 운동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마이너리그가 있어야죠. 마이너리그에서 계속 훈련하고 실력을 닦아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제대로 된 마이너리그 무대에서 제대로 실력을 닦아놔야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관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대를 짠~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꺼이 나서서 마이너리그 무대가 되자는 게 김동순 교수의 생각이었다.

김동순 교수와 벨라미치 예술단은 벌써 후반기 계획으로 설렌다. 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젊은 예술가가 데뷔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작업. 이미 지난 6월 21일 신인음악회를 통해 유망한 젊은 예술가의 데뷔공연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다가올 9월에는, 교토 국제 콩쿠르에 심사를 맡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를 데려와 지역 인재들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를 열 계획이다. "지역 후학들이 정상급 연주자의 지도를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지역 관객들에겐 12월에 소극장 오페라 공연을 선보일 거예요." 후반기 일정을 전하는 김동순 교수의 눈빛은 재밌다는 듯 즐겁게 반짝인다. "모르죠. 이렇게 탄력받아서 정말 벨라미치 예술단이 이탈리아 본토에 가서 공연하게 되는 날도 곧 오겠죠."

선입견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무대라면, 작은 무대도 상관없다. 실용음악을 하는 제자들이 있으니 퓨전 무대도 좋다. 모든 가능성을 펼쳐놓고 관객을 만날 수 있고 연주자들과 가수들이 즐겁게 음악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는 벨라미치 예술단. 원칙은 분명하다. "뮤지컬 필요한데 가서는 뮤지컬, 클래식은 정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죠. 대중음악 재미와 클래식의 재미는 좀 다르니까요."

아름다운 가치들을 놓고 책임감을 느끼며 마음을 모아 온 사람들... 그게 벨라미치, 아름다운 친구들이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것이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은 채 가야죠."

글 _ 정인정 / 사진 _ Bao



후원대상이 단체나 사람이 아니라 '예술'이어야

창원시립교향악단 김대진 예술감독

2017년 12월, 창원지역 클래식계에 깜짝 소식이 전해졌다.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교수가 창원시립교향악단에 예술감독으로 온다는 것. 취임연주회에 클래식 애호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역시나 훌륭했다'. '다음 연주가 기대된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메세나 활동에도 관심이 높다는 김대진 예술감독, 그를 만났다.

창원에 '별'이 떴다. '건반 위의 진화론자'이자 손열음, 김선욱, 문지영 등 한국 클래식의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한 명교수. 김. 대. 진. 그가 온다는 소식만으로 클래식계는 들썩였다. 깊이 있는 작품 분석과 진심을 담은 연주로 창원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김대진 예술감독을 만났다.

Q1 어떻게 창원과 인연이 이어진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하하) 역대 지휘자들 중에 후배인 장윤성 지휘자가 창원시향 취임연주회를 열 때, 협연하러 피아니스트로 왔었어요. 또 초대 지휘자였던 김도기 선생님 때도 와서 연주를 했었고, 2016년 정기연주회 때 객원지휘를 한번 맡았어요. 음악가들이 사실 되게 예민한 성향이 있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에서든 서로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열의를 갖고 하는 교향악단 있다는 게 좋았고, 단원측에서도 나쁘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게 서로 좋았던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된 거죠.

Q2 창원시향과 함께 한지 7개월여... 처음 창원시향과 마주한 느낌은 어떠셨나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보통 악단에선 찾을 수 없는 열의였습니다. 단원들 모두 하고 싶어하고, 만들고 싶어하고, 또 발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의가 저보다 더 컸어요. 첫 번째 리허설 연주를 마치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연주는 실전! 정신력 갖춘 조직으로 '창원시향 사운드'를 찾아가는 중

평소 스포츠를 즐겨본다는 김대진 예술감독은 스포츠와 오케스트라가 비슷한 면이 많다며 축구 이야기를 전했다. "공연예술이기 때문에 몇 월 몇 일 몇 시... 그 날 연주가 딱 잘 돼야 하죠. 우리가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력 덕분이죠. 그런 정신력을 바탕으로 단체가 점점 조직력을 키우며 발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몇 개월 지도해왔는데, 이제는 제법 조직력을 갖춘 것 같고, 그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창원시립교향악단을 새롭게 이끌게 된 그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 그가 그리고 있는 창원시향만의 색깔은 어떤 빛깔일까?

Q3 만들고 싶은 창원시향만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선 지휘자가 바뀔 때마다 이때까지 이뤄졌던 걸 부정하고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외국의 유명 오케스트라를 떠올려보세요. 그들 하나하나가 그들만의 소리, 그들만의 음악적인 문화 조직력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지휘자가 오더라도 50년, 100년 이렇게 오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죠. 교향악단마다 시카고 사운드, 필라델피아 사운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악단마다 그들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그 전통에다가 지휘자들은 자기만의 색깔을 조금 입히는 것 뿐입니다. 그건 어떤 훌륭한 지휘자가 와서 바꾸려 한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합니다.

저의 색깔에 앞서서 창원시향의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무엇일까, 창원시향의 것은 무엇일까...'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제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창원시향만이 갖고 있는 소리, 색깔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굳이 제 색깔이라 하지 않고 창원시향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지휘자가 올 수도 있지만요, 지금은 창원시향만의 사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술가에게 중요한 후원, 개인, 단체가 아닌 '예술'에 대한 후원이어야

피아니스트이자 스승으로서도 재능 있는 제자들을 길러낸 경험이 있는 그이기에 예술가에게 있어 후원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는 메세나의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다. 얼마 전 그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네오메디치 포럼'에 참여하였다. 함께 슈베르트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술 그 자체의 매력을 공유하고 이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Q4 메세나 활동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양음악의 역사에서 종교와 결부되거나 후원자들과 결부되는 상황에서 클래식이 항상 크게 발전했습니다. 대작곡자들 중에 후원이 없었던 작곡자는 거의 없었거든요. 제자 가운데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대표적이죠.

그때는 이렇게까지 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워낙 지영이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거기에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메세나 통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문지영이 있는 것입니다.

Q5 메세나 활동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 아이한테 도움을 주면 5년 있다 콩쿠르에서 1등하는 겁니까?' 하지만, 성과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받는 쪽에선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상품에 투자하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데, 그걸 음악회라던지 전시회라던지 예술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술적인 감흥을 조금씩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적인 지원이 있는 나라가 놀랍게도 잘 없어요. 전부 개인 후원자에게 의지합니다. 해외에선 후원자들이 개인 연주자나 단체에 후원하는 게 아니라, 협회나 큰 기획사에 후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명성이 없는 연주자들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죠. 기획사는 후원을 받았으니까 신인들을 자꾸 등용하고 발굴해서 키워나가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도 메세나 후원의 대상도 사람이나 단체가 아니라 '예술' 그 자체가 돼야 하는 겁니다.



예술적 경험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만들 터...
창원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그래서 그는 작은 공간에서 열리는 클래식 공연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주자들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공연, 거기에 연주자가 곡에 대한 배경과 자기 연주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는 특별한 공연을 경험한 관객들은 팬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Q6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클래식의 대중화'라는 말도 사실 제가 만들었지만, 솔직히 클래식이 대중화 될 수는 없죠. 클래식 인구를 조금 더 늘여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회를 많이 기획해야 하죠. 뉴욕 필 같은 유명 오케스트라도 센트럴 파크에서 맥주와 소시지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펼치죠. 우리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종교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사준다고 해서 곧바로 신앙이 생기는건 아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오케스트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악회 갔더니 되게 좋았다, 재밌었다,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 기억나네' 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죠. 특히 우리 창원시향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싶다고 말하는 김대진 예술감독. 그는 특히 학교에 가서 음악을 경험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중 몇 명이라도 엄청난 큰 충격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학생은 공연장을 찾아오게 된다고...

Q7 있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창원시민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 창원에 뭐 유명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린 벚꽃도 있고, 아귀찜도 있고... 또 오케스트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이고, 자연히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도 생길 테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 오케스트라가 일단 잘 해야죠. (웃음)



2018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총회

경남메세나협회는 2월 22일 호텔 인터내셔널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년도 협회의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올해 사업계획 발표, 예산승인 확정 및 임원선임이 결정되었다.

Mecenat News



사업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7년 협회는 165개 팀 예술단체와 기업 결연을 달성하여 연속 100개 팀 이상 결연성과를 거두었다. 중소기업 매칭펀드 결연 사업은 2008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줄곧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이어 김해시가 매칭펀드 결연사업에 동참한 것도 의미 있다. 이는 협회의 메세나 활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2017 어울림과 소통展'을 개최하여 지역의 기업인들과 미술작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펼쳤다. 또한 창원문화재단과 '문화경영 세미나'를 공동 주관하여 기업과 예술계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

특히 이 사업은 경남메세나협회가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 받은 후 2년 연속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청탁금지법의 시행 등 기업과 예술계가 마주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소외계층의 예술향유 저변확대를 위한 '행복한 문화나눔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사)경남챔버쏘싸이어티를 비롯한 5팀의 예술단체가 3천여 명의 관객들을 만나 도민들의 정서 함양과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결과 보고에 이어 임경숙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후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사들 덕분에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하면서 2018년도는 도민들의 일상 그 자체가 문화 예술이 되는 문화경남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18년도에는 창원시와 김해시의 보조금이 각각 5천만 원 증액된 만큼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 130개 팀 달성과 예술지원 누적 금액 200억 돌파를 목표로 세웠다. 협회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공감' 등 회원 기업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소외 이웃을 위한 문화나눔사업도 꾸준히 추진하며 문화로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메세나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메세나협회, 대구메세나협의회, 제주메세나협회와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임원선임에서는 (주)한국야나세 우영준 회장, (주)센트랄 강상우 부사장과 범한산업(주) 정영식 대표이사, 청호산업(유) 이동기 회장의 직책이 유임되었다. 경남농협 하명곤 본부장, (주)무학 이수능 대표이사는 부회장으로 교체 선임되었으며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의 김제홍 국장이 이사로 교체 선임되었다. 신규 이사직엔 (주)지엔티 안종국 대표이사와 고성오광대보존회의 이윤석 회장이 선임되었다.

2018 경남메세나협회 예술단체 워크숍

경남메세나협회는 4월 24일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홀에서
2018년도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2018 예술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매칭펀드 사업 참여 118개 팀 예술단체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Mecenat News

3월 29일 열린 2018년도 매칭펀드 사업 제1차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총 118개의 기업과 예술단체가 결연을 맺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선정된 예술단체들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자금집행 그리고 투명한 정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의 문은 을숙도문화회관 송필석 관장이 열었다. 송관장은 '100배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전략'이라는 주제로 예술경영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고성오광대보존회의 기업과 예술단체 교류활동 사례 발표가 있었다. 고성오광대보존회의 황종욱 사무국장은 좋은데이나눔재단과 (주)네오CTR과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진행했던 임직원 자녀를 위한 교육, 체험행사, 찾아가는 공연들을 소개했다. 이 발표는 바람직한 메세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특히 올해 신규로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예술단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어서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김지훈주무관이 지방보조금 사용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하선주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장이 매칭펀드 사업안내와 지원금 사용지침, 정산교육 등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도와 협회는 매칭펀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금 집행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기업과 예술단체의 교류협력을 강화를 통해 메세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메세나협회는 도내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예술단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안내, 재원조성 및 정산보고 등 다양한 실무교육을 통해 예술단체의 운영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글 _ 메세나 / 사진 _ Bao

2018 경남메세나협회 임시이사회 개최

Mecenat News

5월 3일 저녁 경남메세나협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제8대 경남메세나협회 회장을 선임하기 위해 소집된 이번 임시이사회는 특별히 창원의 집에서 열렸다. 해가 뉘엿 뉘엿 넘어가는 봄날의 오후 고즈넉한 고택에서 열린 이사회의 분위기는 유독 화기애애했다.

이날 경남메세나협회의 이사들은 협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BNK 경남은행 황윤철 은행장을 선임했다. 황윤철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립 10주년을 넘어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경남메세나의 회장이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경남의 기업과 문화예술이 경남 메세나협회와 함께 더욱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원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는 선임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도 다루어졌다. 이사회는 BNK경남은행 김형동 그룹장을 협회의 새로운 부회장으로 교체 선임했다. 이로써 경남메세나협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0명, 감사 2명, 이사 15명으로 총 28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날 임시이사회에는 한옥의 분위기와 무척 잘 어울리는 경남국악협회 실내악단도 함께하여 이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경남을 대표하는 국악 단체인 경남국악협회는 춘향가 중 '쑥대머리'와 '민요'를 특유의 구성진 가락에 맞추어 연주하며 새롭게 선임된 임원진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경남메세나협회의 발전을 응원하였다.

2018 전국 메세나 단체 대구 워크숍 개최

Mecenat News

메세나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 메세나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2018 전국 메세나단체 워크숍이 지난 6월 29일 대구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 그리고 대구메세나협의회의 실무진들이 참석하여 각 단체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 메세나단체의 개별적인 예술후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메세나 활동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써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가칭) 구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였다. 전국 단위의 통합적인 메세나 활동조직이 구성되면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문화예술후원활성법의 후속 조치로 기업의 문화예술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 문화소비 및 문화 활용을 진작하고, 예술단체들의 창작 매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 구축의 준비단계로서 부산, 광주 등 광역권 도시에 신규 메세나단체 추가 발족을 유도하고 사업 구축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공동의 브랜드로 삼을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대구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간송 조선회화 명품전'을 관람하였다. 간송 전형필은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 국학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일본인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자 이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작품을 수집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실무진들은 한국 예술을 지켜온 큰 나무이자 우리 역사 속 메세나를 실현한 인물인 간송의 수집품을 관람하며 메세나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글 _ 손수나(메세나) / 사진 _ Bao

2018 경남국제 아트페어

세계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8 경남국제아트페어(GIAF2018)가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제 1, 2 전시장에서 열렸다. 경남 유일의 아트페어로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GIAF 2018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경남국제아트페어는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미술문화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GIAF

Gyeongnam International Art Fair

7월 5일 오후 3시 전시장 입구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민규 합포문화동인회 명예 이사장, 최광주 경남신문 회장, 이수능 무학 사장, 정영식 범한산업 회장, 강신철 경남메세나협회 전무, 이년호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 박금숙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창석 더큰병원 행정원장, 최성숙 문신미술관 명예관장, 전영근 전혁림 미술관 관장, 공병철 경남예총 회장, 성춘석 경남민미협 회장, 이상훈 경남도 문화예술과장, 김상문 경남미협 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9번째 경남국제아트페어 개최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경남만의 특화된 아트페어로 거듭나려는 노력

올해는 국내 갤러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국내외 10개국 70개 갤러리가 참여하여 150개의 부스에서 회화, 조각, 영상, 설치미술, 판화,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지난해에 비해 경남 지역 갤러리들의 참여를 대폭 늘린 점이 눈에 띈다. 경남권 미술시장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미술 유통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경남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과 색채의 마술사 전혁림 화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특별 초청전과 경남 미술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젊은 미술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청년작가 특별전 「청춘예찬(靑春禮讚)」을 기획하였다. 두 특별 전시는 각각 경남 미술의 과거와 미래라는 키워드로 묘한 대조를 이루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중저가 작품 및 아트상품 인기

2018 경남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에 따르면 나흘간 7,566여명의 관람객이 아트페어를 찾았으며 5억 2천만 원어치(305건)의 작품이 판매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관람객은 늘어난 반면 판매액은 다소 줄어든 것인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미술시장의 불황이 경남국제아트페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출품된 작품들도 고가의 작품보다는 저가의 작품위주로 출품되어 중저가 작품들이 주로 거래되었고, 각 갤러리가 준비한 아트상품들의 인기도 높았다. 서울옥션의 미술 대중화 브랜드인 'print bakery'가 내놓은 영국 팝아티스트 줄리안 오피의 작품과 팝아트 조각가 데이비드 걸스타인 등 유명 작가 작품들의 한정판 판화는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

경남국제아트페어의 미래를 위한 고민

최근 미술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중저가 작품은 온라인을 통해서, 고가의 작품들은 옥션을 통해 거래되는 추세다. 콜렉터들의 구매 경로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경남국제아트페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경남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남아트페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개최한 두 개의 특별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도내에 화랑협회가 없어 게성 강한 갤러리 중심의 아트페어 개최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앞으로 지역의 사정을 잘 활용하여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한 경남국제아트페어가 되기를 메세나가 응원한다.

글 _ 이규석(독립 큐레이터) / 사진 _ Bao

이성자 화백 탄생 100주년

대지 위에 빛나는 별

대척지로 돌아온 이성자 화백의 작품

이성자 화백(1918~2009)은 오랫동안 귀천(歸泉)을 꿈꾸어 왔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자신의 본태로 돌아가고자 소망했다. 2003년 경남도립미술관이 한창 건축 중일 때 이성자 화백은 미술관 건축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신의 작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경남도립미술관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쉬움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 2008년 경남도립미술관 기획전시를 계기로 하여 프랑스 남부 투레트의 아뜰리에 '은하수'에 보관되어 있던 이성자 화백의 작품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성자 화백의 작품은 진주시에 안착하였다.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이성자 화백의 예술세계와 겹겹이 쌓아온 시간과 열정의 결과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성자 화백은 그 중 376점의 유화, 수채화, 판화, 소묘, 도자기 작품들을 선정하여 진주시립 이성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그녀가 보내온 작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예술세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작가의 배려가 숨어있다.

> 내가 붓질 한 번 하면, 이건
> 우리 아이들 밥 한술 떠먹이는 것이고,
> 또 다시 붓질 한 번 더 하면, 이건
> 우리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

1951년 한국 전쟁 중에 도불하여 2009년 작고할 때까지 60년의 세월 동안 이성자 화백은 회화, 판화, 도자기, 조각, 시화집, 공공미술을 넘나들며 거침없이 작업하였다. 프랑스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돌며 85회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300회가 넘는 전시에 참여하였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85회의 개인전은 그녀의 열정을 짐작케 하는 횟수이다. 세 아들과 이별하며 외로움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슬픔을 작품으로 정면 돌파했다. 고국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쌓여 그림이 된 것이다. 그녀는 "내가 붓 질 한번 하면, 이건 우리 아이들 밥 한술 떠먹이는 것이고, 또 다시 붓질 한 번 더 하면 이건 우리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회상한 바 있다.

이성자 탄생 100주년 기념전 초기부터 말년까지 시대별로 4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대표작 전시

2018년, 어느덧 그녀가 탄생한지 100번째 해가 되었다. 이성자 화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지 위에 빛나는 별"이라는 주제로 회화 27점, 판화 31점, 도자기 15점이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에 전시되었다. 판화 작품은 초창기부터 그녀의 화두가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나무가 주는 따뜻한 질감과 생명력에 깊은 매력을 느낀 이성자 화백은 나무를 자르고 칼로 선을 파는 작업에서 자연을 접하고 평생 회화와 목판화를 병행하며 작업하였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물감을 쌓아 올리는 회화는 '양(陽)'으로, 판을 파내는 판화는 '음(陰)'으로서 서로 순환하는 관계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도자기는 기증 이후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들이라 특히 눈여겨볼만하다. 1970년대 말부터 그녀는 통도사 서운암에서 도자기 작업에 몰두하였다. 프랑스에서도 도자기를 구운 적이 있지만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도자기에 집중한 것은 흙의 종류가 다양하고 질이 훌륭해서 굽기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이다.

이성자 화백 작품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대척지로 가는 길'은 도불 14년 만에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알래스카 만년설의 빙하와 황홀한 오로라를 삼았다. 마지막 주제에 접어들면 그녀의 시각이 우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성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과천관에서 "이성자 :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 전시가 지난 7월 29일까지 이어졌다. 또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에서는 "대지위에 빛나는 별" 전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이성자 화백의 아뜰리에가 '은하수'가 있는 프랑스의 투레트 시립미술관에서 100주년을 기념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성자 화백을 기리는 전시를 진주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화가로서 그녀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대문학가 미셸 뷔토르(Michel Butor)는 이성자 화백을 '파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동녘의 여대사(Ambassadrice de l'aube)'라고 칭했다. "그녀는 그녀가 태어난 나라 한국을 언제나 바라보며 그 마을의 돌을 스치고, 그 마을의 물소리를 듣고, 강가의 바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풍경을 캔버스, 판화, 도자기 안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삭임과 전설들은 우리 프랑스의 그것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성자 화백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프랑스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까지 해냈다.

이성자 화백은 진주를 사랑했고 고향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60년의 세월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이제 완전한 귀천을 위해 준비할 때이다. 밤하늘에 은하수의 오두막과 우주를 산책하는 故이성자 화백의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노라면 더욱 기대하게 된다.

이성자 탄생 100주년 기념전

대지 위에 빛나는 별

2018. 4. 6 - 10. 31

관람시간 | 3월~10월 오전 9시 - 오후 6시
11월~2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관 람 료 | 어린이 500원 / 청소년 및 군인 1,000원
어른 2,000원 / 단체 20인 이상 할인 적용

오시는 길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14

문 의 | 055-749-3663





/ Cosmos en Fêtee 우주의 축제(2000)

글 _ 정인정

세계적 대문호와 예술가들의 열정이 넘쳐났던 레닌그라드

유럽을 향한 소년의 꿈, 예술로 피어나다
상트페테르부르크

2018 러시아 월드컵을 계기로 세계의 이목이 러시아에 집중되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대문호와 수많은 예술가들이 탄생한 문화예술의 나라이다. 그 가운데 러시아 북서부 핀란드만 안쪽에 위치한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는 수많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포함한 독특한 건축물과 함께 세계사를 장식한 문학가와 예술가들의 흔적이 가득하다. 흥미로운 문화예술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보자.



러시아의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1712년부터 1918년 다시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다. 제정 러시아 때는 페테르스부르크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1914년 페트로그라드(Petrograd)로 개칭되었다가, 1924년 레닌이 죽자, 그를 기념하여 '레닌그라드' 라 불렀다. 이후 1980년대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1991년 옛 이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되찾았다고 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라는 이름은 도시의 수호자인 성 베드로(Peter)에서 따왔지만 동시에 이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준다. 바로 바이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표트르 1세(피터대제, Peter I the Great)가 소년시절부터 간직했던 꿈을 실현시킨 도시이다. 10세에 왕위에 오른 표트르 대제는 권력다툼이 분분하고 지루한 생활이 반복되는 왕국이 있는 모스크바를 늘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 그리하여 왕위를 계승한지 15년이 지난 1697년에 표트르 대제는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사절단을 이끌고 유럽 방문 길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는 18개월 동안이나 왕위를 비우고 유럽에 머무는데, 이후 귀국한 표트르 대제는 1701년 핀란드만과 네바 강이 만나는 지역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할 것을 발표한다.

100개의 섬을 연결한 400여개 다리 북쪽의 베네치아를 수놓은 눈부신 성당

유럽을 동경한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백성들의 복장과 외모는 물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꼭 닮은 도시를 러시아에 만들고자 했다고. 그렇게 100개의 섬이 400여개의 다리로 이어진 '북쪽의 베네치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한 인물은 '도메니코 트레치니'라는 건축가. 자아치 섬에는 과거에 정부청사로 사용하던 12개 건물과 여러 개의 성당이 있다. 그 중 최고는 21년에 걸쳐서 완성한 상트표트르-상트파벨 성당이다. 이외에도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수많은 종교 건축물이 이 도시의 상징이다. 1818년에 공사를 시작해 40년만에 완성한 상트 이사크 성당, 바실리에프스키 섬에 세워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겨울궁전, 핀란드만이 보이는 거대한 여름 궁전, 그리고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이 태어나고 활동한 '네프스키 대로'도 대표적인 곳이다.

이곳의 가장 유명한 상징물인 '청동기마상'은 표트르 대제의 위엄을 기린 조각상이라고 한다. 말을 탄 대제가 서 있는 돌은 전설의 '번개 맞은 돌'로 무려 1500톤에 이르는데, 그 당시 오직 사람의 힘으로 6킬로미터나 끌어서 핀란드 만에 가져와서 배에 실은 뒤 지금의 위치로 옮겨놓았다고 한다. 정말이지 도시 자체가 불가능이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듯 하다.

음악가들의 산실, 콘서바토리

림스키-코르사코프, 차이코프스키, 프로코피예프,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러시아와 세계를 대표하는 이들 작곡자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마린스키 극장 건너편에 위치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서바토리(the Rimsky-Korsakov St. Petersburg State conservatory)에서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점도 같다.

콘서바토리는 1862년 안톤 루빈스타인이 설립했지만 오늘의 영광을 논할 때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한다. 1871년부터 1906년까지 이 학교에 몸담은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이 곳에서 첫 강의를 맡았을 때가 27살. 해군장교 신분이었는데 발라키에프, 무소르그스키와 함께 '5인조(the Five)'로 활약했다고 한다. 그들은 서부 유럽의 음악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음악'을 하기 위해 애썼다고 한다. 정식 음악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음악을 위한 활력소가 되긴 하였으나 막상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자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자신이 음악적 기초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미 콘서바토리를 통해 충실히 공부한 차이코프스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더 큰 공부를 자청했다고 한다. 이후 후진 양성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의 열정 덕분에 콘서바토리가 세계 최고의 음악학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안나 파블로바의 마린스키 극장

콘서바토리 맞은 편에 위치한 마린스키 극장(Mariinsky Theatre)은 러시아 발레의 전설을 만들어낸 인물 '안나 파블로바'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1890년 처음 엄마의 손을 잡고 마린스키 극장에 들어선 소녀, 프티파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보고는 마린스키 극장에 있는 제국 발레학교(현재의 바가노바 아카데미)를 찾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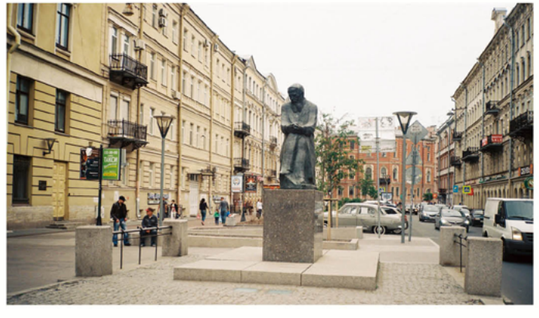
처음엔 너무 어리고 허약해보인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한 소녀는 11살이 되어서 마침내 입학 허가를 얻어냈고 혹독한 훈련을 거쳐 러시아의 백조가 되었다고. 1905년 마린스키 발레단의 정식 단원이 된 직후 발표한 소품 〈빈사의 백조(The Dying Swan)〉은 그녀의 이니셜 같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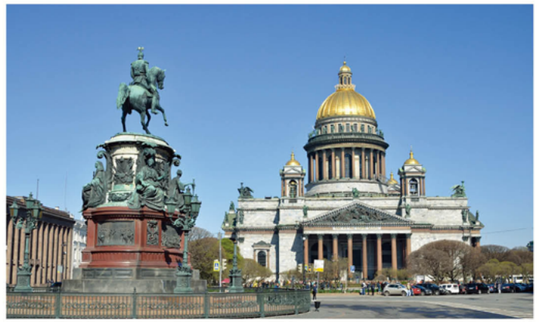
러시아공연예술의 메카, 알렉산드린스키 극장

극작가 안톤 체호프에게 연극사에 길이 남을 좌절을 가져다줬다고 알려진 제국시대의 극장 알렉산드린스키는 러시아 공연예술의 메카로 현재까지도 그 영광을 이어오고 있다.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은 이 도시 곳곳을 빛내온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 카를로 로시(Carlo Rossi)가 디자인한 건물이다. 안팎으로 19세기의 우아함을 잘 간직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극장 앞의 작은 광장에서 전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거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톨스토이, 고골리, 고리키 등 러시아 문학의 산실이기도 하다. 그중에서 도스토예프스키만큼 이 도시의 정신을 반영한 작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19세기 러시아인의 삶은 곤궁하기 그지 없었고 검은 빵 한조각을 먹지 못한채 버둥거리는 청춘들이 넘쳐났다. 도스토예프스키는 1860년대에 이 도시의 작은 쪽방에 기거하면서 거의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창밖으로 인간 군상들을 바라보며 소설을 써나갔다고 한다. 상태페테르부르크에는 도스토예프스키가 기거하며 글을 썼던 장소 2곳이 남아 있다. 센나야의 좁은 골목에서 3개의 방을 옮겨 다녔다고 하는데, 바로 〈죄와 벌〉을 썼고 그 무대가 되는 곳이 이 골목이다. 또 블라디미르스카야 지하철역 근처에 그가 마지막으로 살아던 곳이 박물관 형태로 존재한다. 그는 여기에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사랑한 푸슈킨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 하나를 꼽으라면 시인 푸슈킨(푸시킨)이라고 한다. 그는 〈예브게니 오네긴〉 등 러시아 문학사는 물론 세계문학사에도 위대한 작품들을 줄줄이 남겼다. 바로 이곳에서... 특히 아내를 유혹한 남자와 결투 끝에 죽었다는 로맨틱한 최후가 더욱 더 큰 애정을 불러일으킨다. 덕분에 우린 이 도시 곳곳에서 푸슈킨의 이름을 만날 수 있다. 그 중 '푸슈킨스카야-10 (Pushkinskaya-10) 아트센터'는 1989년에 문을 연 곳이다.

'박물관이 아닌 박물관'을 지향한다는 이곳은 갤러리, 스튜디오, 공연장, 가게들이 모여 있으며 온갖 예술행위가 벌어지는 아주 독특한 장소다.

이외에도 19세기부터 혁명이전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았던 예술가의 리스트는 정말로 화려하다. 문학, 음악, 연극, 발레 등 수많은 분야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의 흔적과 그들이 남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영광 가득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들의 영혼을 잠시나마 느껴보고 싶다.



글 _ 손수나(메세나) / 사진 _ Bao

한옥에서 즐기는 음악과 문학의 만남

하늘과 바람과 첼로와 시時

지난 6월 28일 창원의 집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창원문화재단 2018 지역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경남첼리스타앙상블의 〈시를 읊는 오후〉가 바로 그것이다.
파란 여름 하늘과 가만히 느껴지는 바람 한줄기, 귓가를 스치는 첼로의 선율과 마음을 흔드는 한 줄의 시가 조화를 이룬 이날 공연의 총연출과 기획을 맡은 정진아 대표를 만났다.

Q. 무척 특별한 공간에서의 공연입니다.

네, 오늘 공연은 창원의 집 민속교육관 실내에서 열립니다. 창원의 집 최초 하우스 콘서트라고하더라구요. 경남첼리스타앙상블에게도 한옥 하우스 콘서트는 최초입니다.
물론 전문 공연장에 비해 열악하기는 합니다. 별도의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8명의 첼리스트들을 비롯하여 게스트들이 좁은 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첼로 케이스만으로도 이미 방이 꽉 찼습니다. 사운드 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하지만 오늘 공연의 콘셉트와 한옥의 이미지는 무척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긴장되지만 동시에 무척 설렙니다.

Q. 공연 장소도 특별하지만 오늘 공연의 콘셉트와 구성은 더욱 독특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첼리스타앙상블은 첼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앙상블입니다. 첼로라는 단일 악기로 예술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앙상블의 목적이지요. 하지만 다른 분야와도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협업을 통해 발전이 이루어지듯 우리 앙상블도 여러 예술분야를 아우르며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시'와 '음악'의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시는 언어 예술이고 음악은 선율의 예술임에도 서로가 서로의 영감의 원천이 되어 시가 음악이 되고 음악이 시가 되는 이유는 두 장르가 무척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닮은 점,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이번 작업의 핵심이었습니다.



Q. 프로그램 전반부에 5곡의 창작곡이 연주되는 것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 구성이군요. 공통점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를 선정하고 그 시에 어울리는 음악을 작곡가들에게 의뢰하고, 연주자들은 시와 음악에 녹아 있는 시인과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하고자 소통하는 이 모든 과정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를 세상의 단 하나뿐인 음악으로 만들어준 배우민, 최진우 작곡가와 음악으로 시를 꽃피운 연주자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동시에 예술을 즐기며 오늘 공연의 시 낭송자로 기꺼이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Q. 잠시 후 시를 꽃피울 경남첼리스타앙상블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첼리스타앙상블은 첼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앙상블입니다.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첼로가 좋아서 취미로 첼로를 시작했다가 쌓은 기량을 발휘할만한 기회가 없어 첼로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열정과 목표, 그리고 첼로에 대한 흥미와 사랑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앙상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자들과 일반인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앙상블을 이루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에는 답이 없거든요. 첼로에 대한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합니다.



/ 경남첼리스타앙상블 정진아 대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정진아 대표는 예술에 정답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즐기고자 하는 자세. 폭넓은 음역대로 바이올린 소리부터 콘트라베이스 소리까지 감싸 안는 첼로의 매력처럼 다양한 예술 장르와 소통하며 조화를 이루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 경남첼리스타앙상블은 다음 프로젝트로 첼로와 마술의 컬래버레이션을 구상하고 있다고 살짝 귀띔했다.






글 _ 손수나(메세나) / 사진 _ Bao

배우고 즐기는 도심속 힐링문화공간

창원의 집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같은 신조어들이 2018년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트렌드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자기계발을 하고 근교로 여행을 떠나거나 자신만의 취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경향 때문일까? 최근 창원시 사림동에 위치한 도심 속 힐링 문화 공간 '창원의 집'에는 오랫동안 창원의 집의 곁을 지켜온 지역주민들은 물론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즈넉한 고택의 풍경 속에서 여유를 찾는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배움의 집으로 변신한 창원의 집

2017년부터 창원의 집의 운영주체가 창원문화재단으로 거듭나면서 그동안 정체된 시설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 잡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올해 새롭게 개강한 〈전통문화아카데미〉가 눈에 띈다. 먼저 상반기에는 가야금과 민요(판소리)를 배울 수 있는 음악 교실과 전통 장신구를 만들어보는 미술 교실, 그리고 전통차를 나누며 예법도 익히는 다도 교실이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우수한 강사들이 수강생들과 재능을 나누고 한옥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에서의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니 올 가을엔 고택에서 가야금을 퉁기며 따뜻한 차 한 잔 즐겨보면 어떨까.

전통문화아카데미 수강신청에 실패했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방문객 누구나 언제든지 창원의 집 민속교육관 앞마당에서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창원역사민속관에서는 연중기획으로 〈사계절의 민속문화〉를 운영한다. 여름에는 시원함을 뽐내는 부채와 죽부인, 가을에는 수확을 위한 농사도구, 겨울에는 농한기 여유로운 농심을 담은 주안상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봄갈이 채비에 나서는 농부들의 일상 등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각 계절의 정취를 담은 민속품을 전시하여 전통문화에 생소한 어린이들과 도시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과 겨울의 으뜸 절기 동지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통혼례 체험, 윷점 보기, 동지 굿 시연, 동지 책력 만들기, 팥죽 나누기 등을 통해 세시풍속의 참된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한다.









창원역사민속관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 무대를 창원역사민속관 영상실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SAC on Screen〉은 예술의 전당에서 실시하는 영상화 사업으로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른 우수 공연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보고 즐기며 지역 문화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프로젝트다. 창원문화재단은 지역 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SAC on Screen〉 사업 공모에 발 벗고 나서 유치에 성공했다. 처음 선보이는 영상은 30주년을 맞이한 유니버설발레단의 창작발레 '심청'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심청의 희생적인 사랑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하였다. 특히 무용수들이 눈부신 감성으로 동양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공연이다. 〈SAC on Screen〉은 영화처럼 공연을 무대 곳곳에서 촬영하여 클로즈업 된 배우의 얼굴, 무대의 뒷모습까지도 볼 수 있어 공연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SAC on Screen〉 상영 일정

- 여름 : 유니버설발레단 〈심청〉 2018. 7. 24 ~ 8. 26
- 겨울 : 이건음악회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2018. 12. 25 ~ 2019. 02. 10





사진 동호인들의 출사지로 떠오르는 창원의 집

최근 경남지역 사진 동호인들 사이에서 창원의 집은 꼭 가봐야 할 출사지로 떠오르고 있다. 주말이면 카메라를 들고 정원을 거니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아 직장인 사진 동호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인물 사진 촬영이 취미라는 한 직장인은 한옥을 배경으로 인물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창원의 집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절마다 정원의 빛깔이 달라져 정기적으로 찾고 있는 출사지라고 덧붙였다.

사진 동호인들에게 창원의 집 야간개장 소식은 특히 더 반가울 것 같다. 작년 여름 매회 매진을 이어갔던 창원의 집 〈야행(夜行)〉이 돌아온다. 8월 3일부터 2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 총 8회에 걸쳐 야간에도 고택의 문이 활짝 열린다. 달빛 아래에서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고택의 모습을 렌즈에 담고 싶다면 사전 인터넷 접수는 필수다. 양반과 마당쇠 등 다양한 등장인물과 함께 하는 해설여행과 체험 행사는 프로그램에 풍성함을 더한다.



창원문화재단 9월 기획공연 안내



2017 청룡영화제 남우조연상 수상! 2018 가장 기대되는 배우 〈진선규〉 / 영화 1987 출연 명품배우 〈이희준〉

명품연기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9월 한가위 맞이 달달한 이벤트*

홍진영 & 송소희 사랑해孝콘서트 + 나와 할아버지

동시구매 30%할인(~ 9월13일)

홍진영·송소희 + 나와할아버지	30% 할인
■ VIP 60,000 + 균일 35,000	95,000 → 66,500
■ R 50,000 + 균일 35,000	85,000 → 59,500
■ S 40,000 + 균일 35,000	75,000 → 52,500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메세나 회원사

경남은행
경남오페라단
농협경남본부
㈜무학
㈜센트랄
우수AMS㈜
㈜인산가
임경숙
㈜한국야나세
㈜화인테크놀리지
청호산업(유)
㈜ONE
경남도문화관광체육국 김제홍
경원벤텍㈜
고성오광대 보존회
창원대학교 김도기
㈜리베라관광개발
범한산업㈜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신화철강㈜
원광건설㈜
㈜지엔티
㈜아름나라 고승하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현대단조
화성G&I㈜
the큰병원
가야BS㈜
㈜강민종합건설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거제컨벤션웨딩뷔페
경남개발공사
경남스틸㈜
(주)경남신문사
경남자동차판매㈜
경원여객자동차㈜
㈜경한코리아
㈜고구려
고려이노테크
㈜고려철강
고운가이드치과병원
고운치과병원
광득종합건설㈜
광신기계공업㈜
㈜구구
㈜국제전기
㈜국토보상원
그린산업㈜
그림갤러리㈜
(합자)금강전기공업사
금강중기
금성이노텍㈜
㈜금솔개발
㈜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유)김해공영
낙우산업㈜
남명산업개발㈜
남양매직㈜
(주)네오씨티알
늘푸른 요양병원
대경건설㈜
㈜대길티에프
㈜대동주택
대방스페셜스틸㈜
대선주조㈜
대신금속㈜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한전선전기㈜
㈜대호엠엠아이
㈜대호테크
㈜덕광중공업
㈜동구기업
동양특수금속㈜
㈜동오프랜지
㈜동은화학
두남화학
디씨엠㈜
디케이락㈜
라온산업개발㈜
마산정안과
㈜마창대교
명제한의원
몽고식품㈜
무림페이퍼㈜
문윤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
미즈맘 여성병원
법무법인미래로
㈜베스트엔드베스트
(주)보덕건설
(재)봉림장학회
㈜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
부성자동차학원
㈜부평디엔피
㈜북성산업
㈜사릭
사보이호텔
㈜산호수출포장
㈜삼보산업
삼우금속공업㈜
삼원동관㈜
삼원테크㈜
㈜삼전건설
삼정기업
㈜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유)상화도장개발
㈜서영시스템
서병원
선린지모의원
성부가스산업㈜
㈜성우
㈜성환금속
㈜세복
세아창원특수강
㈜세양정공
㈜세호테크
승진기계㈜
시영건설㈜
신광에이스전기㈜
신요푸드시스템㈜
신장기계
㈜신한물산
㈜쎄노텍
아진기계
㈜에드테크
㈜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브이
㈜에이스코트
영광산업㈜
㈜영남엘피씨
영민테크
㈜영신화공
㈜영일정공
㈜영진테크
㈜영창기업
예인여성병원
㈜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옥산아이엠티
원광산업석재
원한의원
㈜웰템
유림건설㈜
㈜유림철강
윤한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념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레개발㈜
㈜이앤티
㈜이우
이피씨
인산죽염㈜
인화정공㈜
㈜장생도라지
㈜장성E.P.S
㈜장한
정남종합건설㈜
㈜정문애드테크
(주)정일
주용테크
중앙건설㈜
㈜중앙금속
중원종합건설㈜
㈜지에스비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자동차학원
청아의료재단
초심공업㈜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익수의원
츄고쿠삼화페인트㈜
캠코 경남지역본부
㈜케이씨
㈜코앞건설
㈜코텍
쿠쿠홈시스㈜
태광실업㈜
㈜태완정공
㈜태현메가텍
㈜포스텍
풀만호텔
피케이밸브㈜
하이에어코리아㈜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한국소니전자㈜
한국정기공업㈜
한국제강㈜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지사
한국태양유전㈜
한국항공우주산업㈜
㈜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해성메탈㈜
해수종합건설㈜
현대공영㈜
㈜현대기업
㈜혜동
㈜호텔인터내셔널
홍기종합건설㈜
㈜화영
화영철강㈜
화이트치과
㈜화인에이티씨
화일종합건설㈜
㈜환웅정공
흥일기업㈜
PS엔터테인먼트
STX조선해양㈜
STX엔진㈜

Gyeongnam Mecenat

경남메세나 사업소개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에서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 |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상생하며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예술단체 워크숍 | 도내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예술인들의 기획 및 단체운영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 | 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를 기획하고 기업 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공감/문화경영도서 | 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정기탁 |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 |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운 나눔티켓 | 도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 | 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협회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과 경남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 | 회원사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 |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 | 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 문화발전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와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 |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 | 경남메세나협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응원합니다. (1대 홍보대사 금난새 / 2대 홍보대사 홍지민)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 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들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 |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2018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 | 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들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매일 학원자체 시험실시! 매시간 진해 전 지역 셔틀 운행

부성 자동차운전전문학원

1:1 맞춤교육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1:1 맞춤 교육 실시
- 입학과 동시에 교육실시
- 초보운전자를 위한 도로연수
- 1종, 2종 운전면허를 위한 전문교육
- 쉬운 자체시험 코스, 높은 합격율!
-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 운영

친절상담 055-551-9995~7

빛이 되겠습니다

㈜지엔티

EXPLORE FOR ENGINEERING EDGE



전문화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는 사회공헌 기업

ISO9001/ISO14001 인증



GLOBAL

㈜지엔티

대표전화 (055) **296-7799** **FAX** (055) **296-7788**

1공장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503번길 26-2
2공장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523-11
3공장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산단 북로 20

한아름 푸드가 전하는

하루세끼 Healthy Grain 건강하게

규칙적인 식생활이 건강의 첫걸음!

고객 맞춤형 컨설팅



기업체/학교/병원 위탁운영



단체급식 위탁운영



주방설비 및 시공







본사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4길 12

TEL : 055)293-0443 / 010-3830-4302

이레개발(주) · 한아름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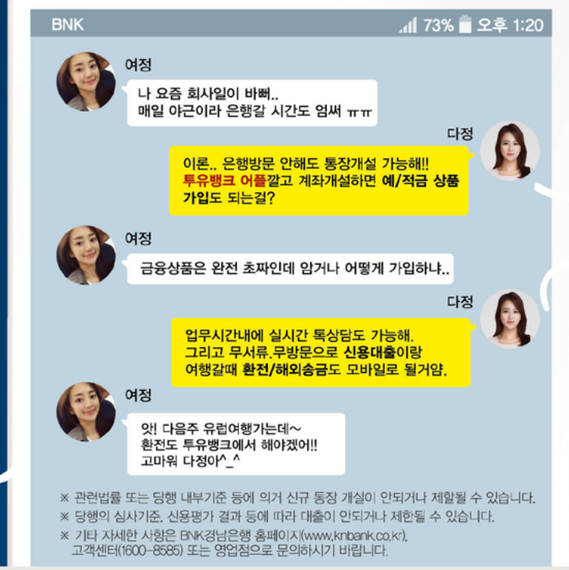
대 표 : 명 길 성

BNK Financial Group

어떤 순간이든 투유뱅크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문을 연 BNK경남은행은?

투유 | 뱅크



※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신규 통장 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
고객센터(1600-8585)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개설도 모바일에서 OK!

환전도 모바일에서 OK!

예금·적금/대출도 모바일에서 OK!

BNK 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스마트폰 안에 쏙! **투유뱅크**

BNK 경남은행 모바일전용 서비스를 한 앱에 쏙! **투유금융**

BNK 경남은행 입출금 내역 다양한 혜택정보가 쏙! **투유알림**

BNK 경남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17-G-993 심의일자 : 2017.11.21 유효기간 : 2018.12.31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기업이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Tel 055) 285-5611 Fax 055) 286-5610